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제주는 안전한가

중학생 살인 이후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사건 처리율 전국 1위... 가정폭력도 검거 ↑ 제주경찰 “여성폭력엔 적극 개입 기조 유지”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 스토킹 사건 처리율이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피해자 가족의 신변보호 요청에도 막지 못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312건이다. 신고 중 '사건'으로 처리돼 검거된 건수는 184건(59%)이며, 이 가운데 반복신고·흉기 사용 등 위험성이 높은 33건은 잠정조치 4호 처분에 따라 유치장에 유치됐다. 제주의 스토킹 사건 처리율

(59%)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평균도 33.3%에 그친 상황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신고는 올해 8월 기준 2411건이었는데, 이 중 852건(926명)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되거나 보호조치 처분을 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7일 50대 A씨가 '100m 이내 접근금지'라는 임시조치 처분을 어기고 아내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유치장에 유치되는 신세가 됐다. 지난달 18일에는 스토킹 범죄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20대가 전처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제주경찰은 가정폭력·스토킹 범

죄 등 여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개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옛 신변보호) 전종요원 운영, 관·서장 등 중간관리자 책임 강화, 정기적 사후관리 등 대폭 강화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여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보호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물론 현장 대응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가해자 분리·처벌, 피해자 보호지원 및 재발방지라는 큰 목표 아래 여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뭇다 피운 딸의 꿈 후배들이 이어주길”

42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딸 위해 전덕자씨, 딸 모교 제주중앙여중에 장학금

뭇하지 않은 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 아이를 가슴에 품고 사는 어머니가 딸의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16일 제주중앙여중에 2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전덕자(78·서울 거주)씨다. >>사진 19일 제주중앙여중에 따르면 전씨의 딸인 고(故) 김은진 학생은 1980년 12월 고입 연합고사를 치른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어머니는 모범생이었던 딸이 자신의 꿈 한번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제주중앙여중 김창연 교장은 “전덕자 여사는 자기 딸은 불의의 사

고로 학업을 마치지 못했지만 후배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장학금을 쾌척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재학생들의 장학금을 불리 일으키는 데 요긴하게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이번 방문에서 딸의 명예 졸업장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중앙여중 측은 관련 서류를 검토, 심의한 뒤 오는 10-11월쯤 유족에게 고인의 명예졸업장을 전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선희기자 sunny@ihalla.com

파도 휩쓸린 낚시객 사망 제주시 용담동 갯바위서

제주시 용담동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19일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47분쯤 제주시 용담3동 레포츠공원 서측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 A(60대) 씨가 파도가 친 후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3척과 구조대와 특공대 등 24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으며, 제주소방서 구조대와 구급대도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 구조대는 같은 날 오후 8시56분쯤 인근 해상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A 씨를 발견했지만 제14호 태풍 난마들의 영향으로 몰아친 거센 파도로 인해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구조대는 오후 10시42분쯤 소방 헬기 한라매를 이용해 해상에서 실종된 A 씨에 대한 구조에 나서 오후 11시11분쯤 헬기 호이스트를 이용해 구조에 성공했다. A 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거센 파도 뚫고 들어하는 어선들 제14호 태풍 '난마들'의 영향권에 든 19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의 거센 파도를 이겨내고 한 어선이 출어에 나서고 있다.

태풍 영향으로 제주 산남북 기온 '역전'

19일 된 현상 서귀포 34.8℃ 기상관측 이래 9월 최고기온 980hPa, 최대풍속 초속 29m, 강풍 반경 360km로 여전히 강도 '중'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태풍 난마들은 일본 혼슈를 관통한 뒤 20일 오후 3시 열대저압부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됐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북서풍이 불면서 산남·북의 기온이 역전됐다. 습한 바람이 한라산을 넘으면 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는 '뒀 현상'은 통상 제주 북부지역에

집중됐는데, 이번에는 북서풍으로 인해 남부에 뒀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실제 이날 서귀포의 낮 최고기온이 34.8℃로 1961년 기상 관측 이래 9월 최고기온을 경신한 반면 제주는 27.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고온 현상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끝나겠다. 20일 아침 최고기온은 19~21℃, 낮 최고기온은 24~25℃로 19일과 비교해 4~10℃ 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역시 아침 최고기온은 18~19℃, 낮 최고기온은 23~24℃로 전망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보궐선거 출마 부상일 변호사 법정행 제주지검 최근 기소 결정... JDC '호별 방문' 혐의

6·1 지방선거 당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부상일 변호사가 법정행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부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 변호사는 보궐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각 부서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즉 면세사업본부 방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각 부서를 일일이 방문(호별 방문)하

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본 것이다. 호별 방문이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년, 벌금 4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부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JDC면세점 직원들을 만났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직접 게재하기도 했다. 이후 SNS 게시물을 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부 변호사가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부 변호사는 “법을 위반하는 호별 방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아고 있는 일

- ▶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감귤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미니향 2년생 ● 레몬3년생,
- 제라몬2년생 ● 미니몬1년생
- 하귤(아마나스)1~4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유라조생1~2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히노야카리 3년생
- 오히라베니와세(궁천번이지) 1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 탱자묘목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식물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임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은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귤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